

발행일 2019. 4. 15.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발행인 박재욱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전화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28
제 작 ㈜봄인터랙티브미디어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방안¹⁾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민경선

I. 논의의 배경

- 세종시 백제대제는 1983년 '백제총령제'로 시작되어 1986년 '백제대제'로 개칭된 후 2018년 36회차를 맞이함
- 30년 넘게 지속되었으나 행사 콘텐츠 및 인지도에서 발전적 변화가 부각되지 않아 장기적 관점에서의 발전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세종시 백제대제가 소규모 제례행사에서 역사 문화제로 발돋움한다는 비전 하에 기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백제대제의 의의와 가치를 계승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함

II. 세종시 백제대제에 대한 이해

■ 유래와 연혁

- 세종시 백제대제는 1960년대 비암사에서 발견된 계유명전 씨아미타불비상(국보 제106호)에 백제가 멸망한 직후 673년 전씨 등 백제 유민들이 8개의 석불비상을 만들어 절에 시납하고, 매년 4월 15일 백제 역대 국왕과 대신, 칠세부모를 위한 제를 지냈다는 기록에서 유래함
- 세종시 백제대제가 타 지역의 백제대(왕)제와 구분되는 점은 온조왕 이래 백제의 역대 국왕 모두를 추모하는 제례를 지낸다는 것임

[표 1] 세종시 백제대제 개요

구분	내용
유래	• 673년 전씨 등 백제 유민들이 비암사를 짓고 8개의 석불비상을 만들어 시납한 후, 매년 4월 15일에 백제의 국왕과 대신 및 유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제를 올렸다는 국보 제106호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의 기록에 근거함
장소	• 세종시 전의면 비암사 및 운주산성
목적	• 백제의 역대 왕과 신하, 칠세부모, 백제 부흥운동군의 혼령을 기림
주요행사	• 백제대제, 범종 타종, 헌다, 추도사, 산사음식 체험 등

- 그러나 백제대제가 이어져 온 역사에 대해 공동주관처인 '비암사'와 '세종문화원'은 다른 입장을 견지 함
- 비암사는 673년 이후 백제 국왕, 대신, 유민 등을 위한 크고 작은 추모제가 지속되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봄
- 반면 세종문화원은 조선시대까지는 백제대제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하나, 그 이후에는 제를 지내오지 않다가 1983년에 재개되었다고 봄

[표 2] 세종시 백제대제 연혁

구분	내용				
673년	•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한 백제의 역대 국왕과 대신, 칠세부모를 위하여 673년 전씨를 중심으로 불상을 만들고, 절을 지어 매년 4월 15일에 제를 지내게 됨				
	<table border="1"> <thead> <tr> <th>비암사</th> <th>세종문화원</th> </tr> </thead> <tbody> <tr> <td>• 673년 이후 백제 국왕, 대신, 유민 등을 위한 크고 작은 추모제가 지속되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봄</td> <td>• 조선시대까지는 백제대제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 그 후에는 제를 지내지 않다가 1983년에 재개되었다고 봄</td> </tr> </tbody> </table>	비암사	세종문화원	• 673년 이후 백제 국왕, 대신, 유민 등을 위한 크고 작은 추모제가 지속되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봄	• 조선시대까지는 백제대제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 그 후에는 제를 지내지 않다가 1983년에 재개되었다고 봄
비암사	세종문화원				
• 673년 이후 백제 국왕, 대신, 유민 등을 위한 크고 작은 추모제가 지속되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봄	• 조선시대까지는 백제대제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 그 후에는 제를 지내지 않다가 1983년에 재개되었다고 봄				
1983년	• 1983년 4월 15일(음력)에 '백제총령제'로 제를 올리기 시작				
1985년	• '백제총령제' 개최일자를 양력 4월 15일로 변경				
1986년	• 행사명을 '백제총령제'에서 '백제대제'로 변경				
1990년	• 금이산성에 제단을 설치하고 제를 지냄				
1992년	• 제를 지내는 장소를 비암사로 변경				
1999년	• 비암사에서 "대백제국왕대신"이라고 적힌 조선 초기에 제작된 기와가 발견되면서, 조선시대까지 제를 지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됨				
2002년	• 4월 14일에는 "백제대제와 비암사"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와 전야 행사로 탐돌이가 진행되었고, 4월 15일에 개최된 백제대제에서는 제작한 모형석불비상을 시납하는 군사행렬이 재현됨				
2014년	• '세종시 백제대제'로 행사명을 변경				
2018년	• 세종문화원은 '백제대제'로, 비암사는 '세종시 비암사 백제영산대제'로 행사명을 다시 변경하여 진행				

자료 : 세종문화원 내부자료 "백제대제 역사"를 참고해 연구자가 재구성.

■ 2018 세종시 백제대제 분석

- 2018년 세종시 백제대제는 세종문화원과 비암사로 주관처가 이원화되어 별도로 진행됨

1) 본고는 2018년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인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방안 연구」(2018년 9월 발행)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세종문화원은 고산사와 운주산성 광장에서 백제 돌레길 걷기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고, 제례행사는 유교 방식으로 운영함
-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많았고 온조왕 이래 백제왕 이름이 새겨진 깃발을 좌우사열하여 세종시 백제대제의 특성을 드러냄
- 비암사에서 진행된 백제영산대제는 크게 제례행사와 문화공연으로 구분됨
- 세종시 백제대제의 유래가 된 불비상이 출토된 비암사에서 불교식 제례행사와 문화공연까지 이어져 백제대제에 대한 이해를 높는데 기여함

[표 3] 2018 세종시 백제대제 개요

구분	세종문화원	비암사
행사명	제36회 백제대제(百濟大祭): 백제 돌레길 걷기 대회	1345년차 세종시 비암사 백제영산대제(百濟靈山大齋)
일시	2018.04.15. 10:00	2018.04.15. 9:30
장소	고산사, 운주산성 광장	비암사
주관	세종문화원	대한불교조계종 비암사

■ 개선 필요사항 진단

- 이원화된 운영으로 행사 파급효과 감소 우려: 공동주관처인 세종문화원과 비암사가 같은 날 동일 시간대에 제례행사를 진행해 물리적으로 두 곳의 행사에 모두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음
- 세종시 백제대제만의 특성 부각 부족: 타지역과 구분되는 차별성은 지역문화예술제 발전의 중요 요소가 되는 만큼, 세종시 백제대제만의 특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관객개발을 위한 홍보 부족: 타겟 관객층을 설정하고, 그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
- 지역 간 연계·협력 부족: 세종시 인근에는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부여·익산) 및 백제세계유산센터(대전)가 있어서, 인근 지역과 연계·협력한다면 세종시 백제대제의 행사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임
- 낮은 행사 장소 접근성: 행사 장소(비암사, 운주산성)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Ⅲ.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방안 제안

■ 발전 방향 제안

- 세종시 백제대제의 주요 특성으로 ①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국보 제106호)의 기록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역사문화적 가치), ②불비상을 시납한 곳으로 기록되어 있는 '비암

사'와 백제 역사문화자산인 '운주산성'에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는 점(장소성), ③백제의 역대 모든 국왕을 추모하는 제례를 지낸다는 점(제례대상)을 선점함

-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소규모 제례행사에서 역사문화제로 도약”이라는 발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안함



<그림 1>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 방향

■ 추진과제 제안

- 백제대제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를 ‘단기과제(2019년~2020년)’, ‘중기과제(2021년~2023년)’, ‘장기과제(2024년 이후)’로 구분해 제안함

[표 4]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을 위한 단계별 중점 추진과제 제안

구분	중점 추진과제			
단기 과제 (2019~2020년)	지원 제도 체계화	백제대제 발전 TF팀 조직	지역문화 연계 프로그램 개발	관람객 특성 및 수요조사
	평가·환류 체계 구축		공정한 예산지원 방안 마련	
중기 과제 (2021~2023년)	↓	중장기적 발전방안 마련	백제대제·백제문화 학술연구	백제대제 특화 콘텐츠 강화 및 연계 사업 발굴·기획
	단계적 예산 증액 방안 마련	추진위원회 조직 계획 수립	백제문화 교류 가능 분야·지역 탐색	안내 홈페이지 구축
장기과제 (2024년 이후)	일원화된 추진위원회 출범 추진			
	국비 공모 사업 지원 고려	백제문화 교류 네트워크 구축	백제대제 정체성 강화프로그램 운영	주요 관객층 맞춤형 홍보 전략 마련

3월 대전 경제동향



종합평가

대전지역의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8년 7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11월 잠시 주춤하였으나, 12월 이후부터 상승하는 추세임. 한편, 경기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7년 11월 이후 연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 향후 대전지역 경기는 당분간 하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개별지표에 있어서는 전월대비 고용여건이 다소 개선된 반면,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건설경기가 악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함. 전년동월대비로는 고용상황과 건설경기가 악화된 반면, 생산과 소비가 활발하고, 수출이 증가함.

우리나라 경제는 건실한 소비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산업활동 및 경제심리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임. 그러나, 반도체 가격 조정, 중국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함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며, 글로벌 통상 갈등, 영국 브렉시트 관련 EU의 불확실성 등 리스크 요인이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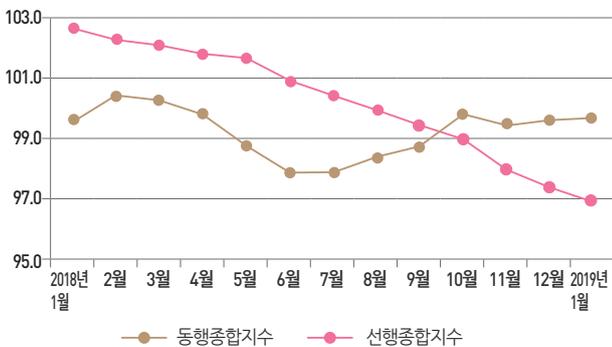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 창출 대책 및 저소득층·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 지역 현안 및 국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할 것임

01

경기지수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2015년=100)



02

생산 제조업생산지수



(2015년=100)



03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단위: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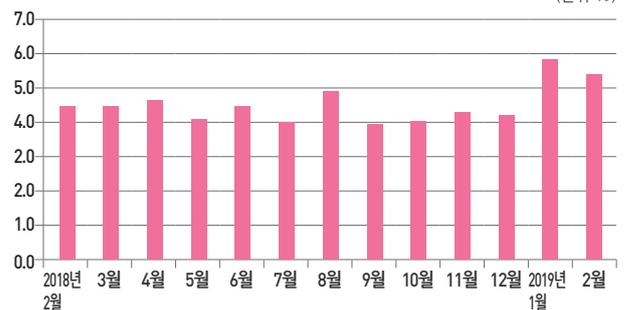


04

고용 실업률



(단위:%)



3월 세종 경제동향



종합평가

세종시의 2019년 3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83.8로 나타남.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하락하던 체감경기지수는 2월부터 증가함. 소상공인의 경기에 대한 전망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생산측면에서는 세종시 2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 전월 대비 11.7% 감소함.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11.4% 감소함

2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350건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34.1% 감소함. 전월세 거래량은 2,069건으로 전년 대비 26.7%, 전월 대비 5.0% 증가함

2월 경제활동 인구는 16만 4천명으로 전년 동월(13만 9천명) 대비 18.0% 증가, 전월(16만 천명) 대비 1.9% 증가함. 취업자는 15만 8천명으로 전년 동월(13만 6천명) 대비 16.2%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0.6%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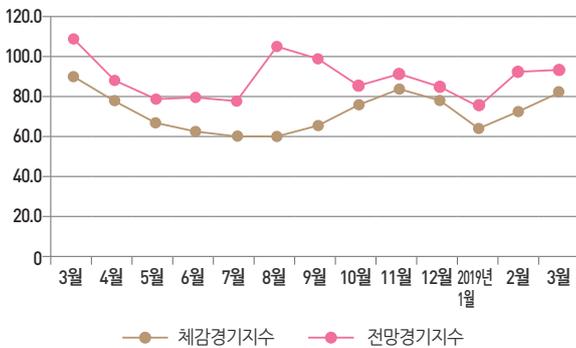
2월 전국의 실업률은 4.7%이며, 세종시 실업률은 3.5%로 제주도(2.8%), 충남(3.1%), 전북(3.2%), 전남(3.2%) 다음으로 낮게 나타남. 세종시 2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1%p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0.9%p 감소함

01

경기지수 소상공인 경기지수



(100=전월 대비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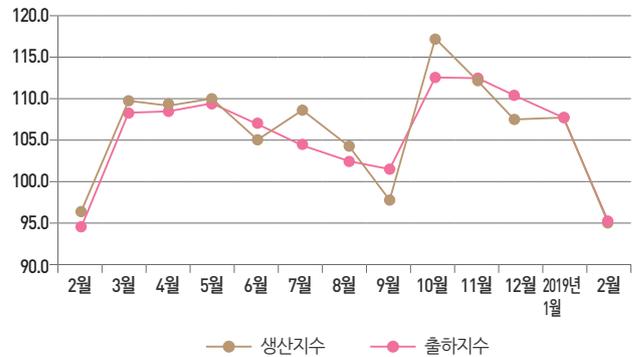


02

생산 광공업 생산지수 추이



(2015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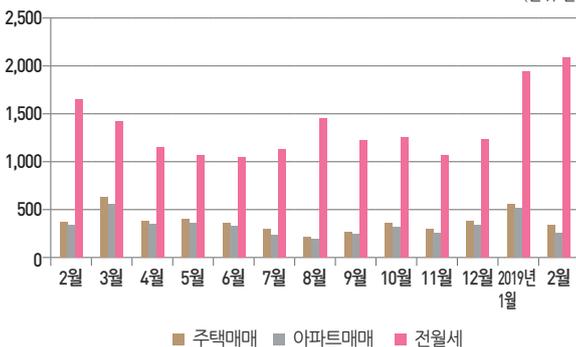


03

부동산 부동산 가격지수



(단위:건)



04

고용 실업률



(단위:%)

